

학생 미충원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손실 분석

정원내 신입생 미충원인원(10,507명)의 91.5%가 비수도권대학(9,613명)에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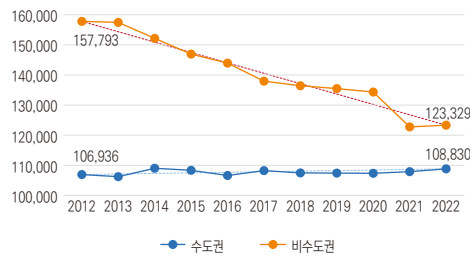
- 2022년 사립대학의 정원내 모집인원은 2012년도 대비 26,196명 감소하였으나, 수도권대학은 2,332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대학에서 28,528명 감소하였음
- 2022년 사립대학의 정원내 신입생 입학자수는 232,159명으로 2012년(264,729명) 대비 32,570명 감소
 - 수도권대학의 정원내 신입생 입학자수는 2012년 대비 1,894명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대학은 34,464명 감소함
 - * 정원내 입학자의 감소비율은 비수도권 소규모 > 대규모 > 중규모대학 순임
 - 전체 미충원인원은 10,507명으로 91.5%가 비수도권대학(9,613명)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중 (9,613명) 중 49.8%를 비수도권 중규모대학(4,791명)이 차지함
 -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은 95.7%로 2012년(98.5%) 대비 2.8%p 감소하였고, 수도권대학의 충원율 감소폭은 0.4%p로 나타난 것에 비해 비수도권대학의 충원율은 정원내 모집인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감소폭이 4.9%p로 매우 큼

〈표 1〉 사립대학 연도별 정원내 신입생 충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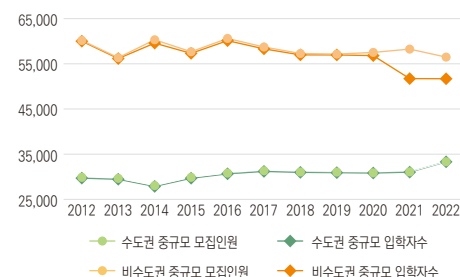
(단위: 명, %, %p)

지역	구분	2012				2022							
		정원내 모집인원(A)	정원내 입학자(B)	미충원 인원	충원율	정원내 모집인원(A)	정원내 입학자(B)	미충원 인원	충원율	'12년 대비 증감			
전체	소계	268,862	264,729	4,133	98.5	242,666	232,159	10,507	95.7	-26,196	-32,570	6,374	-2.8
수도권	소계	107,392	106,936	456	99.6	109,724	108,830	894	99.2	2,332	1,894	438	-0.4
	대규모	67,502	67,362	140	99.8	67,712	67,561	151	99.8	210	199	11	0
	중규모	29,872	29,699	173	99.4	33,332	33,310	22	99.9	3,460	3,611	-151	0.5
	소규모	10,018	9,875	143	98.6	8,680	7,959	721	91.7	-1,338	-1,916	578	-6.9
비수도권	소계	161,470	157,793	3,677	97.7	132,942	123,329	9,613	92.8	-28,528	-34,464	5,936	-4.9
	대규모	69,312	69,170	142	99.8	55,215	53,600	1,615	97.1	-14,097	-15,570	1,473	-2.7
	중규모	60,166	60,005	161	99.7	56,486	51,695	4,791	91.5	-3,680	-8,310	4,630	-8.2
	소규모	31,992	28,618	3,374	89.5	21,241	18,034	3,207	84.9	-10,751	-10,584	-167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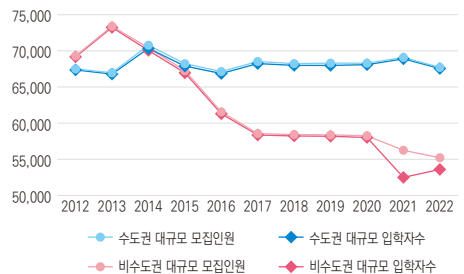
주 1) 고등교육법 2조의 4년제 사립대학(일반대, 산업대) 대상 분석, 캠퍼스 본교 통합·분교 구분
 2) 미충원인원: 정원내 모집인원(A)-정원내 입학자 수(B)
 3)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입학자 수(B) / 정원내 모집인원(A)} × 100
 4) 규모: 재학생수 기준, 대규모: 10,000명 이상 / 중규모: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 소규모: 5,000명 미만
 자료: 대학정보공시(23.4.2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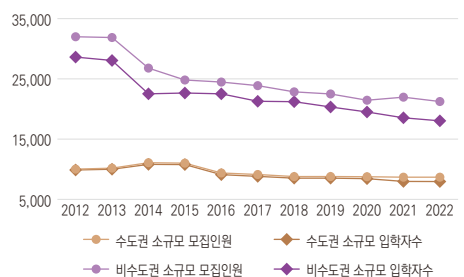
〈그림 1〉 지역별 정원내 입학자수 추이



〈그림 3〉 지역별 중규모대학 모집인원 및 입학자수 추이



〈그림 2〉 지역별 대규모대학 모집인원 및 입학자수 추이



〈그림 4〉 지역별 소규모대학 모집인원 및 입학자수 추이

발행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행인 장제국
 담 당 대학혁신지원실 미래전략팀
 이성은 팀장, 지준오 주임전문원,
 김흔 연구원
 문 의 02-6919-3942

중도탈락 학생수 5,649명 증가, 학생 비율 0.7%p 증가

중도탈락 학생비율 비수도권 소규모 > 비수도권 중규모 > 수도권 소규모대학 순

● 2021년 사립대학의 중도탈락 학생수는 74,948명으로 2011년(69,299명) 대비 5,649명 증가

- 비수도권대학의 중도탈락 학생수는 48,086명으로 수도권대학(26,862명)에 비해 21,224명 더 많고, 비수도권대학의 중도탈락 학생 중 44.7%를 중규모대학(21,518명)이 차지함
- 재적학생수 대비 중도탈락 학생비율은 5.0%로 2011년 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소규모 대학이 8.2%로 가장 높으며, 2011년 대비 1.3%p 증가함

* 중도탈락 학생비율은 비수도권 소규모 > 비수도권 중규모 > 수도권 소규모대학 순임

- 수도권대학의 중도탈락 학생수는 2011년 대비 4,853명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대학은 796명 증가함

* 수도권대학의 재적학생수(715,566명)가 2011년 대비 17,744명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대학의 재적학생수(769,423명)는 153,201명 감소한 것에 기인

〈표 2〉 사립대학 연도별 중도탈락 학생 현황

(단위: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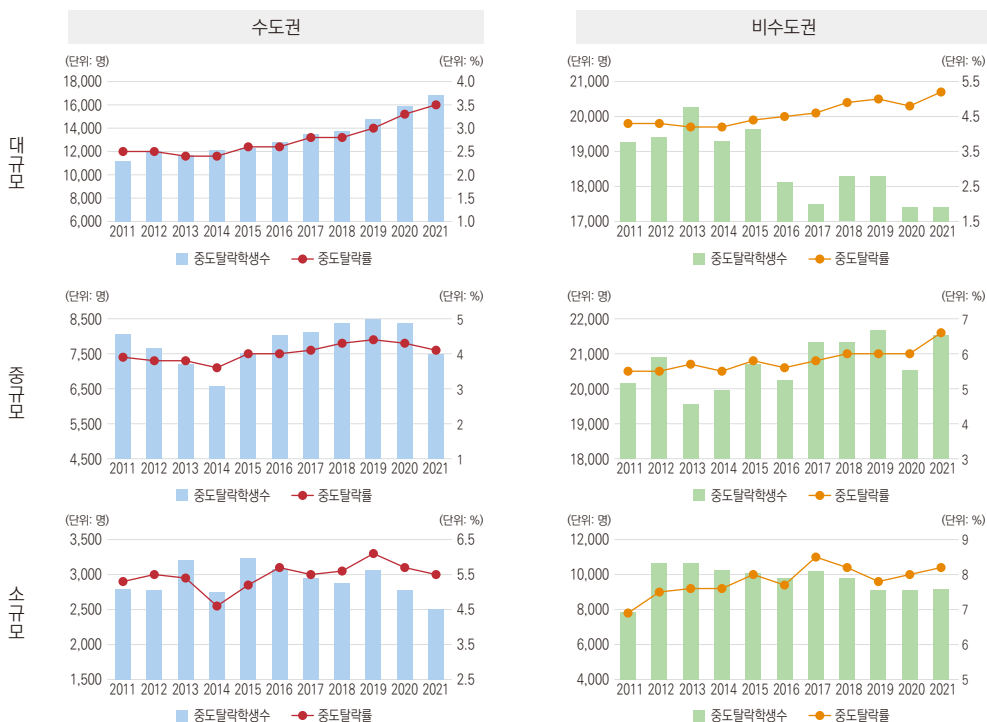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21년			'11년 대비 증감		
지역	규모	재적학생수	중도탈락 학생수	학생비율	재적학생수	중도탈락 학생수	학생비율	재적학생수	중도탈락 학생수	학생비율
전체		1,620,446	69,299	4.3	1,484,989	74,948	5.0	-135,457	5,649	0.7
수도권	소계	697,822	22,009	3.2	715,566	26,862	3.8	17,744	4,853	0.6
	대규모	440,071	11,171	2.5	485,990	16,859	3.5	45,919	5,688	1.0
	중규모	205,196	8,051	3.9	184,135	7,500	4.1	-21,061	-551	0.2
	소규모	52,555	2,787	5.3	45,441	2,503	5.5	-7,114	-284	0.2
비수도권	소계	922,624	47,290	5.1	769,423	48,086	6.2	-153,201	796	1.1
	대규모	447,264	19,278	4.3	334,085	17,411	5.2	-113,179	-1,867	0.9
	중규모	361,773	20,161	5.6	324,186	21,518	6.6	-37,587	1,357	1.0
	소규모	113,587	7,851	6.9	111,152	9,157	8.2	-2,435	1,306	1.3

주 1) 고등교육법 2조의 4년제 사립대학(일반대, 산업대) 대상 분석, 캠퍼스 본교 통합·분교 구분

2) 중도탈락학생비율(%): (중도탈락 학생 수 / 재적학생 수) × 100

3) 규모: 재적학생수 기준, 대규모: 10,000명 이상 / 중규모: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 소규모: 5,000명 미만

자료: 대학정보공시(23.4.21. 인출)



〔그림 5〕 지역 및 규모별 중도탈락학생수·탈락률 변화 추이

신입생 미충원 증가에 따른 2025년 예상운영손실 금액 1,684.5억(53개교) 비수도권대학의 예상운영손실 금액 1,590억원(44개교)으로 94.4%를 차지

● 사립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증가에 따른 학생직접수입·지출 감소 금액을 추정하여 향후 예상운영손실 분석한바, 2025년 1,684.5억원(53개교)의 예상운영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2025년 수도권대학은 94.5억원(9개교), 비수도권대학은 1,590억원(44개교)의 예상운영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예상운영손실(1,684.5억) 중 비수도권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9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모(비중)는 연도별 증가하는 추세임

* 예상운영손실(대학수): '22년 594.2억(35개교) → '23년 873.3억(38개교) → '24년 1,231.2억(44개교) → '25년 1,684.5억(53개교)

- 대학규모별 예상운영손실을 살펴보면, 수도권 중·소규모대학에서는 평균 10억원 내외, 비수도권 대·중규모대학 평균 43억원, 소규모대학 평균 24억원 내외의 예상운영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4년간 누적 예상운영손실률을 살펴보면, 평균 8.0%의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비수도권 소규모대학의 예상운영손실률은 20.4%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손실률 5% 초과 대학의 분포는 수도권대학이 4개교인 반면, 비수도권대학이 25개교로 대부분을 차지함

* 수도권대학 65개교 중 9개교(13.8%), 비수도권대학 91개교 중 32개교(35.2%)가 4년간 누적 예상운영손실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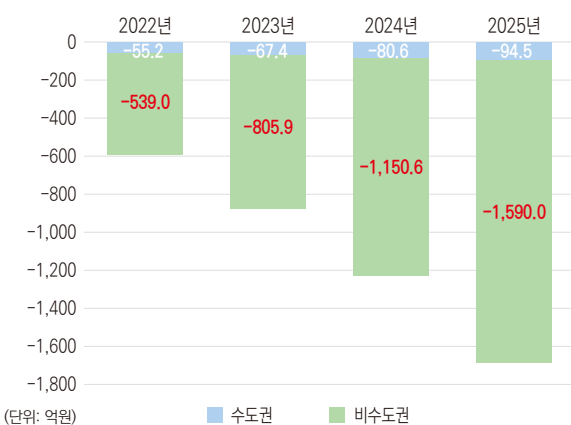
〈표 3〉 사립대학 신입생 미충원으로 인한 예상운영손실

(단위: 개교,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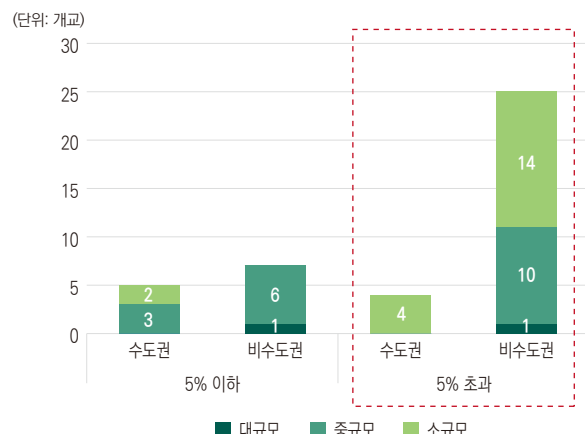
구분		2022		2023		2024		2025		4년간 누적 예상운영손실률			
지역	규모	대학수	금액	대학수	금액	대학수	금액	대학수	금액	대학수	평균 손실률	5% 이하	5% 초과
전체		35	-594.2	38	-873.3	44	-1,231.2	53	-1,684.5	41	-8.0	12	29
수도권	소계	9	-55.2	8	-67.4	9	-80.6	9	-94.5	9	-3.4	5	4
	중규모	3	-11.1	3	-11.1	3	-11.1	3	-11.1	3	-0.8	3	0
	소규모	6	-44.1	5	-56.3	6	-69.5	6	-83.4	6	-8.7	2	4
비수도권	소계	26	-539.0	30	-805.9	35	-1,150.6	44	-1,590.0	32	-9.0	7	25
	대규모	1	-36.5	2	-76.0	2	-146.2	6	-254.5	2	-5.6	1	1
	중규모	13	-316.0	14	-492.9	17	-697.2	22	-945.4	16	-7.9	6	10
	소규모	12	-186.5	14	-237.0	16	-307.2	16	-390.1	14	-20.4	0	14

주 1) 대학수 : 고등교육법 2조의 4년제 사립대학(일반대, 산업대) 대상 분석, 캠퍼스 본교 통합 분교 구분 중 운영손실대학
 2) 예상운영손실(손실): $\sum_{i=1}^n \{2021\text{회계연도 운영손익}(i) - n\text{년차 예상 학생직접수입 감소분}(ii) + n\text{년차 예상 학생직접지출 감소분}\}$
 · n년차 예상 학생직접수입 감소분: ㉠2021회계연도 학생직접수입 × ㉡예상 미충원 증가율(상수) × n년
 · n년차 예상 학생직접지출 감소분: ㉢2021회계연도 학생직접지출 × ㉣예상 미충원 증가율(상수) × n년
 · 학생직접수입: ㉤학부수업료 + ㉬국가장학금 + ㉭예금이자
 · 학생직접지출: ㉮교외장학금 + ㉯교내장학금 + ㉺실험실비 + ㉻학생지원비 + ㉼기타학생경비
 · 예상미충원증가율: 2021학년도 신입생 미충원율 ÷ 현재원성연도
 3) 예상운영손실률: $\text{예상운영손실(손실)} \div \sum_{i=1}^n (2021\text{회계연도 수업료수입}(i) \times n\text{년차 예상 신입생 총원율}(ii))$
 4) 수도권 대규모대학에는 예상운영손실 대학 없음
 5) 규모: 재학생수 기준, 대규모: 10,000명 이상 / 중규모: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 소규모: 5,000명 미만
 * 등록금이 책정되지 않은 광주가톨릭대학 제외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교비회계 자금계산서(2022.08 말 통계자료 기준)



〔그림 6〕 지역 및 연도별 대학 예상운영손실(금액)



* 수도권 65개교 중 9개교(13.8%), 비수도권 91개교 중 32개교(35.2%)

〔그림 7〕 지역별 누적 예상운영손실률 해당 대학수

수도권·비수도권의 중·소규모대학 19개교는 신입생 미충원으로 인한 예상운영손실(향후 4년 누적)을 보전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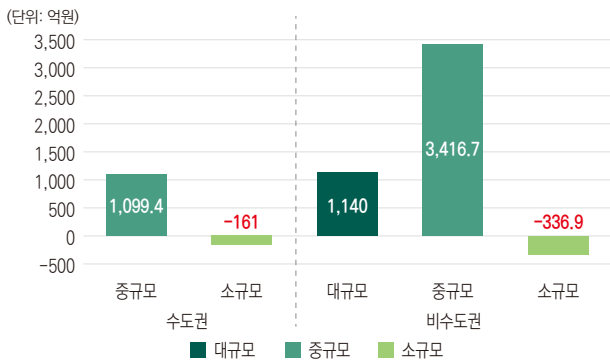
- 사립대학의 예상운영손실(향후 4년 누적) 금액을 '21년 임의적립금과 미사용차기이월자금으로 보전가능한지 분석한바, 예상운영손실이 발생할 41개교 중 19개교(수도권 4개교, 비수도권 15개교)에서 임의적립금과 이월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신입생 미충원으로 인한 운영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예상운영손실(향후 4년 누적) 41개교의 2021년 임의적립금과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각각 8,299.1억원, 1,025.2억원이고, 예상운영손실금액은 4,166.1억원으로 추정됨
 - 수도권대학의 예상운영손실(향후 4년 누적)은 295.1억원(9개교)이고, 비수도권대학은 3,871억원(32개교)임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중규모대학은 임의적립금과 이월자금을 투입한다면, 예상운영손실(향후 4년 누적)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규모대학에서는 임의적립금과 이월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예상운영손실을 보전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표 4〉 사립대학 예상운영손실 보전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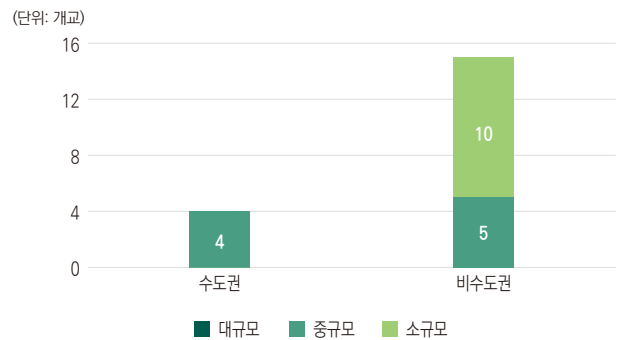
(단위: 개교, 억원)

지역	구분	향후 4년 누적 예상운영손실 대학수	2021년 임의적립금(A)	2021년 미사용차기이월자금(B)	예상(향후 4년) 운영손실(C)	예상운영손실 보전수준 (A+B+C)	불가 대학수
	전체	41	8,299.1	1,025.2	-4,166.1	5,158.2	19
수도권	소계	9	1,210.3	23.1	-295.1	938.4	4
	중규모	3	1,089.4	54.5	-44.6	1,099.4	0
	소규모	6	120.9	-31.4	-250.5	-161.0	4
비수도권	소계	32	7,088.8	1,002.1	-3,871.0	4,219.8	15
	대규모	2	1,415.7	168.6	-444.3	1,140.0	0
	중규모	16	4,962.1	805.6	-2,351.0	3,416.7	5
	소규모	14	711.0	27.9	-1,075.7	-336.9	10

주 1) 대학수 : 고등교육법 2조의 4년제 사립대학(일반대, 산업대) 대상 분석, 캠퍼스 본교 통합 분교 구분 중 예상운영손실대학
 2) 예상운영손실 보전수준 : 임의적립금(①임의연구적립금+②임의건축적립금+③임의장학적립금+④임의퇴직적립금+⑤임의특정목적적립금) + 미사용차기이월자금(기말유동자산-기말유동부채) 예상운영손실(손실)의 절대값
 3) 규모: 재학생수 기준, 대규모: 10,000명 이상 / 중규모: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 소규모: 5,000명 미만
 4) 수도권 대규모대학에는 예상운영손실 대학 없음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및 대학대조표(2022.08 말 통계자료 기준)



〔그림 8〕 지역 및 규모별 예상운영손실 보전수준



* 수도권 65개교 중 4개교(6.2%), 비수도권 91개교 중 15개교(16.5%)

〔그림 9〕 운영손실 보전 불가 대학수

Remark

수도권 소규모 및 비수도권 중·소규모 대학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신입생 미충원 증가에 따라 중·소규모대학의 재정위기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수도권 소규모 및 비수도권 중·소규모대학의 예상운영손실 금액과 손실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임의적립금과 미사용차기이월자금으로도 보전할 수 없는 수준임
- 재정적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소규모대학에 대하여 재정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
 - 공공주도의 대학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대학재정역량강화 컨설팅, 대학재정자립을 위한 규제 개선, 학생 충원 제고를 위한 실질적 지원 등